

〈알고 행하라〉

이원미강도사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4:30-5:20

〈주님께 위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 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 눈물 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 주 말씀이 ‘알고 행하라’인데 더 깊고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었어요.〉

올해 모든 말은

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온 것임을 알아라.

너희는 새롭게 변화되는 고생을 겪을 것이다.

나에게 오직 순종하며 따라온 자는

온전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이제 정녕코 마지막이 다가오니,

남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나의 신부들아, 너희의 간절한 애원을 듣고 있노라.

간구와 몸부림을 보았노라.

모두 내가 기억하며 각자에게 축복을 더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곁에 있음을 알아라.

나의 신부들아, 모두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거하는 예수이니라.
모두 믿을지어다.
믿는 자, 표적이 일어나리라.
섭리사 나의 신부들아,
포기 말고 낙심 말고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는 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나를 생각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 천국으로 함께 갈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섭리신부들.
마지막까지 포기 말고 힘을 내라.
내 사랑은 너희의 죄의 덩어리보다
수 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도다.

그러니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노라.
영원한 사랑 너희 모두 다 받을지어다.
사랑의 나 주예수가 모두에게 전하노라.